

## 산업안전 문화 조성 공동노력

한국소비자원은 12월16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공동 감시 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 공유 및 연구 사업 공동 수행, 소비자(근로자)에 대한 안전문화 조성, 실무 협력 정례화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산업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활안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까지 국내 안전보건 수준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8/12/16>